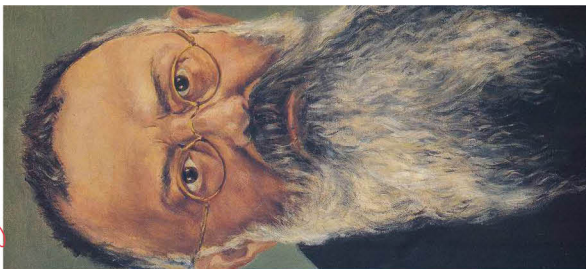


교황청 전교기구 설립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여는 글	3
교황청 전교회 설립자 - 복자 폴린 마리 자리코	6
교황청 베드로사도회 설립자 - 잔 비가르	12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설립자 - 샤를 드 포르뱅장송 주교	18
교황청 전교연맹 설립자 - 복자 파울로 만나 신부	22
교황청 전교기구	27
마침 글	28



선교는,
세례받은 모든 신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우리는 모두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설립자들이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선교에 협력할 자신들의 은사에 충실하였듯이
그분들이 걸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사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그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복자 폴린 마리 자리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봉헌된 영혼은
비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한 열정이
삶의 일부여야 합니다

복자 파올로 만나 신부



복자 폴린 마리 자리코



MARIE-PAULINE JARICOT
LYON (FRANCE) 1799-1862

교황청 전교회는...

- _182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
- _1844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 인준
- _1922년 비오 11세 교황, 교황청 산하 기구 승격

가난한 선교 지역

신생 교회들의 사목 활동과

선교사들의 활동을 돕는 기구로

전교 주일을 주관하며

이날 지역 교회에서 모금된 후원금은

보편 교회의 선교 활동에 사용됩니다.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



‘직조공들’ 모임 기록화

교황청 전교회 설립자 복자 폴린 마리 자리코는 1799년 7월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인인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폴린은 다섯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사랑 안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폴린은 16살 되던 해의 사순절 주일에 위르츠 아파스의 ‘허영에 대한 환상들’이라는 설교를 듣고, 공허했던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는 열정을 느끼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폴린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1816년에 개인

적으로 동정 서원을 하고 그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겨낼 것을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하던 폴린은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신학생 오빠에게 해외 선교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에 폴린은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방직 공장 근로자들과 함께 ‘직조공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모금 활동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정기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였고, 이렇게 모인 선교 후원금은 선교 지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더욱 조직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

교 모임을 만들고자 했던 폴린은 한 조에 열 명의 회원과 한 명의 팀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후원금을 모아 폴린에게 전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성금은 파리외방전교회로 보내졌습니다.

폴린의 '전교회 모임'을 전해 들은 사제와 평신도들은 전 세계 선교 연대의 중요성을 깨달아 1822년 5월 3일 리옹에서 회의를 열었고, 전교회를 선교 연대 모임의 최선택으로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전교회는 폴린과 가톨릭 공동체의 선각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되고, 그 후원금은 세계 선교 기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폴린은



폴린의 '개인 동정 서원' 기록화

1826년에 '생활 로사리오회'를 만들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쉽게 기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기도로써 선교적 연대의 중심을 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1862년 1월 9일 새벽, 폴린은 “사랑으로, 용기 있게 십자가를 잡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폴린은 1963년 2월 25일 요한 23세 교황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었고 2022년 5월 22일 프랑스 리옹에서 복자품에 올랐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너무도 사랑한 교회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한 인물’로 폴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폴린이 말년을 보내고 선종한 방

잔 비가르



JEANNE BIGARD
MORTAGNE (FRANCE) 1859-1934

교황청 베드로사도회는 ...

- _1889년 프랑스 칸에서 설립
- _1890년 레오 13세 교황 인준
- _1922년 비오 11세 교황, 교황청 산하 기구 승격

선교 지역의 청년들이

자국에서 교육을 받고

봉사할 수 있도록

선교 지역의 성직자와 수도자 양성에

정신적·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구로

성소 주일을 주관합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마태 9,37-38)



잔 비가르는 1859년 12월 2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영적인 삶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이어받은 잔은 복음을 위한 일꾼들, 특히 선교 지역 사제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키워갔습니다.

187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년 뒤 오빠도 사망하자 두 모녀는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점차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일에 마음을 기울이며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활동의 시작은 일본에 파견된 선교사들을 위한 제대 용품과 제의를 만드는데 일어났습니다. 당시 나가사키 대목

구장이었던 쥘 쿠쟁 주교는 인류의 복음화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사제 양성의 필요성을 통감하였지만, 신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교는 1889년 6월 1일 비가르 모녀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 잔 비가르는 이 요청이 그녀를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끔 이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수많은 사제의 어머니가 되는 소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선교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으며, 곧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선교 지원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렇게 프랑스 서북부 도시 캥에서 전세계 선교 지역의 사제 양성을 돕는 ‘베드로사도회’가 세워졌습니다. 잔과 그녀의 어머니인 스테파니 비가르는 전 재산을 단체에 기증하고, 베드로사도회는 복음화를 위해 필수적이고도 긴급한 사업 중 하나인 ‘선교 국가의 신학교 지원을 통한 지역 사제의 양성과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잔은 건강 상태가 위태로운 중에도 선교에 투신하며 그녀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



께 봉헌합니다. 병으로 인해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에 베드로사도회를 위탁한 잔 비가르는 1934년 4월 28일 알랑송에서 선종하였습니다.



제8대 조선 대목구장 뮌텔 주교와 신자들

샤를 드 포르뱅장송 주교



Mgr DE FORBIN-JANSON
PARIS (FRANCE) 1785-1844

교황청 어린이전교회는...

- _1843년 프랑스 낭시에서 설립
- _1844년 그레고리오 16세 교황 인준
- _1922년 비오 11세 교황, 교황청 산하 기구 승격

‘어린이를 돕는 어린이’라는 신조 아래,
어린이들의 기도와 희생
그리고 후원으로
가난한 선교 지역 어린이들의
의료와 교육, 학교 건축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마르 10,14)



중국의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포르뵁장송 주교는 오랜 친구이자 전교회 설립자인 폴린과 의논하며 어린이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는 데 영감을 받습니다. 전교회가 해외 선교를 도우려는 어른들로 조직되었듯이, 어린이들을 돕고자 하는 어린이들의 모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주교는 가난한 교회 안에서,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비록 어린이들은 약하지만, 아이들은 깊은 신앙심과 담대함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어른들에게도 자극이 되

리라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르뵁장송 주교는 1843년 5월 19일 프랑스 낭시에서 '어린이전교회'를 시작하고 중국과 선교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주교는 회원들에게 선교를 위한 기도와 성금을 모으는 활동을 요청합니다.

오늘도 어린이전교회는 포르뵁장송 주교의 꿈, '어린이를 돕는 어린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어린이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의 봉사를 실천합니다.

복자 파올로 만나 신부



PADRE PAOLO MANNA, P.I.M.E.
AVELLINO (ITALIA) 1872-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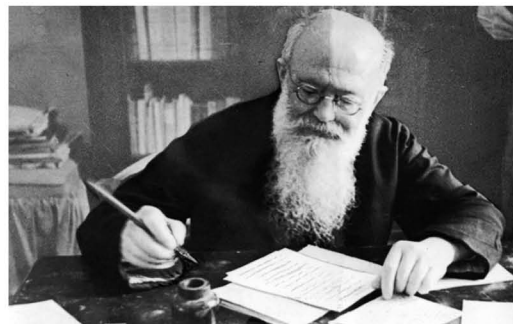
교황청 전교연맹은 ...

- _191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설립
- _1918년 베네딕토 15세 교황 인준
- _1956년 비오 12세 교황, 교황청 산하 기구 승격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기도로 선교사들과 함께하며,
형제적 나눔과 사랑을 증언하는
기구입니다.

“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레위 19,2)



집필 중인 만나 신부

1872년 1월 16일 이탈리아 아벨리노에서 태어난 복자 파올로 만나 신부는 1895년 서품을 받고 이탈리아 밀라노 외방선교회 소속 사제가 되었고 그해 9월, 지금의 미얀마인 버마 동부의 퉁구라는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나 신부는 선교 활동 중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선교사들의 어려움과 해외 선교에 대한 신자들의 무관심을 통감하였습니다.

이후 심각한 병으로 인해 미얀마 선교를 포기해야만 했던 만나 신부는 1909년 초부터 40년 동안 다양한 활동과 집필을

통해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헌신합니다. 또한 교구와 본당에서 ‘Missionary Zelatrices’를 창설하여, 당시에는 아직 프랑스에 국한되었던 전교회와 어린이전교회를 이탈리아에서도 활성화시켰습니다.

선교 사업을 돕는 조직을 꿈꾸던 만나 신부는, 1916년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성직자 전교연맹(현 전교연맹)’을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성직자 전교연맹의 활성화가 사도직 활동에 대한 신자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고, 더욱 많은 선교사 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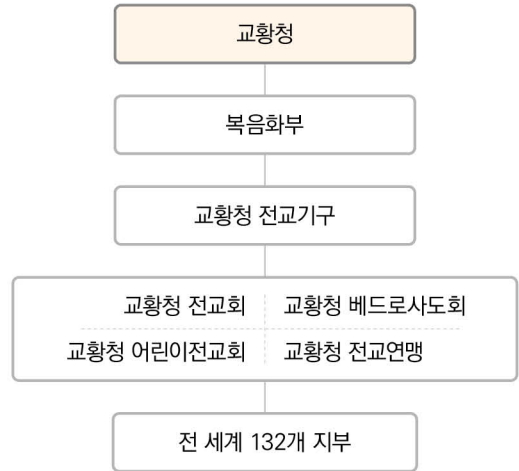
만나 신부는 모든 주교와 사제, 세례받은 신자들은 선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포는 수도회와 선교기관에만 맡겨질 수 없습니다. 선교를 위해 모든 교회를 동원하고 조직합시다.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직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의무로 삼읍시다.”

성직자 전교연맹은 몇 년 사이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1919년에는 이탈리아에 4,035명, 1923년에는 약 16,000명의 사제가 전교연맹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파올로 만나 신부는 2001년 11월 4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습니다.



만나 신부와 동료 선교사들 / 만나 신부 친필 서한

교황청 전교기구



교황청 전교기구는 ‘만민 선교’(missio ad gentes)와 모든 교회의 선교 지원 촉진을 위한 교황의 기구로서 전 세계적 관계망이며, 동시에 지역 주교회의의 기구로서 한국 지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132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 카리스마는 세례받은 모든 이들의 선교 의식 함양과 증진을 위한 기도와 희생, 애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힘을 입
어 용기와 열의로 가득 차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작에서부
터 성령께서 함께하신 이 사명은 이천 년이
넘도록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이끄시어 ‘만민
선교’(missio ad gentes)의 기틀을 마련한 전교기
구 역시 그 설립자들의 선교 열정을 계승하
여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에서 선교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는 세계 각지에
서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기도 안에서 일치
하며 이들에게 힘을 보탬으로써 만민 선교
에 함께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선교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며
또한 그분 백성을 향한
열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68항

Pontifical Mission Societies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카카오톡채널

발 행 일 2024년 2월 1일
발 행 인 신우식 신부
편 집 인 정경수녀
편 집 장희재, 문혜영, 임미숙, 김기라
발 행 처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 소 (04918)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전 화 02-2268-7103
홈페이지 www.pmsk.net
전자우편 pmsk@pmsk.net
디 자 인 블랙핑거

성경·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인류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교회를

만백성의 구원을 위한 성사가 되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계속되게 하소서.

또한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안에 한 가정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